

# “무아사상으로 동서화합 앞장”

## 대구 경북 연등회 창립...회장 이용택씨

국민회의 대구·경북 연등회가 1월 27일 대구은행 본점강당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부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에 이용택사장(경주관광개발공사)이 추대됐으며, 상임부회장에 현해봉씨(서예가), 감사에 이진기씨(前대구투자금융과장), 총무에 김상길씨(지정상조개발 대표)가 선출됐다.

이어 열린 2부 창립법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이용택씨는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진화를 이룰 수가 없다”며 “무아사상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룩해 제2천국을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암(前 조계종 종정), 철옹(성전암 주석), 성덕(동화사 주지), 성태(불국사 주지), 원명(대구사원련 회장)스님을 비롯하여 유상종(대구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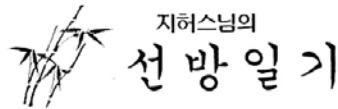


◇대구·경북 연등회가 27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단체연합회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 육체 학대로 견성 가능한가



##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 11월 7일 고행

견성은 육체적인 자학에서만 가능할까. 가끔 생각해보는 문제다. 우리대중 가운데 특이한 방법으로 정진하는 스님들이 있다. 흔히들 선객을 괴객(怪客)이라고 하는데 이 선객들이 괴객이라고 부르는 스님들이다.

처음 방부 받음 때 논란의 대상이 된 스님은 명등(明燈)스님이다. 이 스님은 명등을 하기 때문이다. 시비와 논란의 우려곡절 끝에 방부가 결정되어 공양 시간에 뒷방에서 생식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래서 소임도 간편한 명등이 주어졌다.

수두(水頭)스님은 일종식(하루에 한끼만 먹음)을 하고 원두스님은 오후불식을 한다. 그리고 간변(看便)스님은 장좌와(늘지 않고 수면도 앉아서 취함)를 한다. 육두(浴頭)스님은 목욕을 취한다. 개구성(開口聲)이란 기침뿐이다. 일체의 의사는 종이에 글을 써서 소통한다. 그 초라한 선객의 식생활에서 더욱 절제를 하려는 스님들이나, 하루 열두시간의 절가부좌로 곤혹을 당하는 다리를 끝내 혹사하려는 스님이나, 스스로 병어리가 된 스님을 대할 때마다 공부하려는 그 의지가 가상을 지나 측은하기까지 한다. 이유가 있단다.

스스로 남보다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하여 또는 무복종생(無福衆生)이라 하루 세끼의 식사는 과분해서라고.

뒷방에서 색다른 시비가 벌어졌다. 도대체 인간이란 육체가 우위냐? 정신이 우위냐? 하는 앙케이트를 던진 스님은 지전(知殿)스님이다. 언제나 선방의 괴객들을 백안시하는 이과(理科)출신의 스님이다.

“단연코 정신이 우위지요. 선객답지 않게 그런 실문을 던지시오. 입이 공하면 열뿐이나 할 일이지요.”

문과(文科) 출신인 부목(負木)스님이 반박했다.

선객들은 대부분 불교의식(특히 불공식)을 외면한다. 평소엔 지전스님이 의식의 권위자처럼 으시대고 종이 탁자맡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목스님이 보니 비교는 투로 나왔다.

“정신을 지탱하는 것은 뭐요?” 지전스님이 물었다. 드디어 지전스님(理科)과 부목스님(文科)이 시비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야 육체지요.” “뿌리없는 나무가 있을 피우지 못하고 구름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을게요.

육체를 무시한 정신이 있을수 있겠소?”

“육체가 있으니 정신이 있는게 아니겠소. 어찌 상식이하의 말을 하오. 정신과 육체의 우열을 가름하자고 하면서 말이오.”

“논리적인 상식에 충실하시오. 우리는 지금 논리를 떠난 화두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논리에 입각해서 정신과 육체의 우열을 가름하는 시비를 가지고 있는거요. 결국은 유물(唯物)이나 유심(唯心)이나 라는 문제가 되겠소만.”

“유심의 종가적인 선방에서 유물론을 들춘



그림·이준석

## 생식·일종식·묵언·장자불와 수행 구도심 발로인가-위선·자학인가

다는 것이 상식이하한 말이지요. 육체는 시한 성이고 정신은 영원성이라는 것은 유물론자들이 아닌한 상식으로 되어있는 사실이지요. 시간이 소멸함에 따라 육체의 덧없음에 비해 정신의 승화를 생각해 보시오.”

“본래적인 것과 결말적인 것은 차치해 두고 실제적인 것에 충실하여 논리를 비약시켜 보도록 합시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든다는 생리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보면 육체가 단연 우위일 뿐이요, 병든 육체에서 신성한 정신을 바란다는 것은 고목에서 잎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뿐이오.”

“육체적인 외면이 많을수록 정신적인 승화가 가능했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의 사실들을 들어 예증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주위에 서도 실증되고 있지요. 내는 근기가 약해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일종식이나 오후불식이다 생식이다 장좌와보다 묵언이다 하면서 육체가 추구하는 안일을 버리고 정신이 추구하는 견성을 위해 애쓰는 스님들을 잘 살펴 보시오. 이 얼마나 가슴쓰러운 육체에 대한

사랑스러운 정신의 도전이며 승화인가를.” “그것은 작위며 위선이지요. 내가 구도자임을 표방하는 수단일 뿐이요. 참된 구도자일 수록 생명(性命)을 온전히 해야 할 것이요. 양생(養生) 이후에 양지(良知)가 있고 양지 이후에 견성이 가능 할 뿐이오.”

“노장학파의 무위에 현혹되지 마시오. 그들은 다만 세상을 기피하면서 육체를 오롯이 하는 일에만 급급했지 끝내 그들이 내세운 지인(至人)이 되지 못했기에 제세안민(濟世安民)을 하려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소멸될 속명에 놓여 있는 육체를 무시하면서 구도목적(究竟目的)인 견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오. 견성은 곧 생생제도를 위해져서니까요.”

“육체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 승화될 수 있겠소? 업고 속에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중생이 말이오?”

“가능하지요. 그 가능성 때문에 여기 이 산속에 있지 않소. 거의 지옥같은 생활을 하면서 달이오.”

“중생에게 절망을 주는 말을 삼가하시오. 스스로 병신이 되어야 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인데 우리 불가에서는 육체적인 불구자는 스님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소. 이 규정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있든다는 진리를 옹변으로 대변해주고 있소. 고장을 모르고 조화된 육체가 바로 우리 선객에게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지요. 견성(性) 열반(涅槃) 피안(彼岸) 적멸(寂滅)이 있기까지한 말이오.”

“글쎄 스님은 그 간소한 육체의 포로가 되어 등신불처럼 안온한 땅지 쪽에서 서서 업보 중생을 바라보고만 하는군요.”

“나는 등신불이 되지 않기 위해 육체를 건전히 하며 업보중생을 느끼기 위해 극악한 업보중생의 표본같은 이 선방생활을 하고있소. 결론에 도달해 봅시다. 나는 스님 말따라나 그 간소한 육체가 좋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체가 너무 싫어서 육체를 다스리고 있소. 육체는 바랄 수 있는게 아니라 느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우리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느끼기도 바라보지도 못할까봐 세상을 멀리 하면서도 세상을 온전히 하기 위해 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을 뿐이오. 아무런 우리가 세상을 멀리 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불안정하더라도 최소한도 현재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지 근본적으로 와해돼 버린다면 우리가 견성을 해도 어쩔수 없을 뿐이오. 이해가 되시지요? 그만합시다. 입선시간입니다.”

시비는 가려지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중생이 사는 세상에서 시비란 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생이 바로 시(是)와 비(非)로 구성된 양면적인 존재니까.

# “전직원 불자화로 도약 재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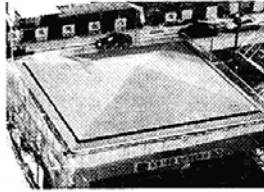
## 불자기업 탐방

### 성풍산업

#### 성지순례로 단합 다져 지붕방수 신기술 개발



◇성풍산업 본사 직원들은 매년 2회 사찰을 찾아 단합제를 갖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치악산 상원사 참배후.



◇U.T.E.F로 지붕 마감 재시공 모습.

전문건설업체인 성풍산업(대표 김영웅)은 5월 북한 신도에 짓는 KEDO(케도) 2천세대 근무자용 아파트공사에 지붕마감재 시공부문을 수주했다.

불심으로 통진 성풍산업은 서울시 864개 방수회사중 도급순위 30위로 현대 삼성 대우 코오롱 고려산업등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연간 6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방수·도장전문 건설업체. 직원은 본사에 20명과 현장에 2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풍산업은 입사시부터 불자를 우선 채용한다. 화합과 정직 성실을 사훈으로 하는 회사방침에 따른 것으로 임직원과 사원들은 창의적인 근무는 물론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이다. 교계신문 10여부를 정기구독

하여 사원의 불교교리공부를 지원하고 공사현장에 1백~2백부씩 보내기도 한다. 또 1년에 2차례씩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형식의 단합대회와 한달에 2차례 화합제를 갖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합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 신수회 거조암 만발공양

본지 신행수장자들의 모임인 신수회(회장 이영자)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영천 거조암에서 제2회 철야정진 수련회(사진)를 가졌다. 신수회는 이에 앞서 거조암 나한전에 만발공양을 올렸다.

### 우리 모임에선

#### 동대문경찰서 불불점안

동대문경찰서 불불화(회장 김화철)는 1월 28일 청사 3층에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 및 후불탱화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교무원장 암도스님, 강명스님(장흥 원각사주지) 법경스님, 이진호 지도법사, 백승진법사(보현정사)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 불암사교양대 노인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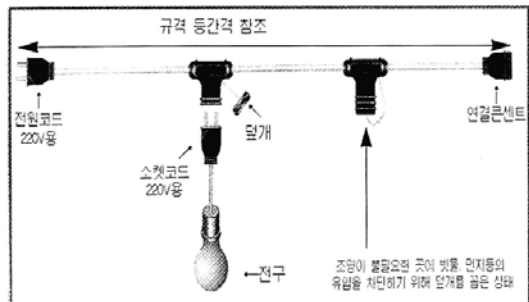
불암사교양대학(학장 일면스님)은 1월 30일 독거노인돕기행사를 가졌다. 불암사교양대학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가구에 각 10만원씩 전달했다.

#### 법조불자회 판문사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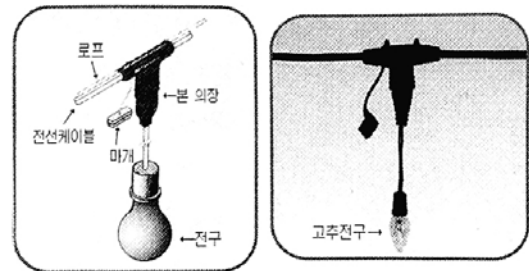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는 1월 23일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우면동 천태종 관문사 참배법회를 가졌다.

# 봉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 ▶ 규격 등간격
  - 등간격 30cm, 50cm → 전체길이 25m
  -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 규격의 : 주문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 ▶ 등 종류
    - 외부용 : 후로킹
    - 내부용 : 팔각등 실크 후로킹
  - ▶ 기타 주문
    - 본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약속일에 맞춰 제작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예민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